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개최일시	2012.2.1(수) 15:00~16:30	회의장소	진관 101호 (세미나실)
참석자	오수근, 차미경, 조경원, 신경식, 이승욱, 서미옥, 서지희(7인)		
불참자	정나위, 김한결, 장윤희, 최은, 심정현, 박현(6인)		
안건	2012학년도 등록금 심의(4차)		
내용	<p>1. 개회</p> <p>- 위원장은 총 위원 13인중 7인의 위원이 참석함을 확인하고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 개회를 선언하다.</p> <p>2. 심의사항</p> <p>- 위원장은 제3차 위원회의 회의록을 낭독하고 위원들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제4차 회의에서는 등록금 인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후, 등록금책정을 위한 심의를 종결할 것을 제안하다.</p> <p>- 인하율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인원수를 감안한 등록금 인하 자료를 보면 학부 및 대학원을 2% 인하할 경우 31억 적자, 2.5% 인하 할 경우 39억 적자, 3% 인하할 경우 48억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 • 만약 3%(명목 3.5%) 인하할 경우 현재 사업계획(안)에서 추가로 34억을 더 감축해야 한다 (명목 인하율과 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유형 계산 시 적용되는 인하율이 달라 이 위원회에서는 <u>국가장학금 II유형 인하율(명목인하율)</u>로 설명하기로 함) ▪ 위원장은 학교 재정 상황으로 보면, 5% 이상을 인상해야 하고 최대한 인상을 낮춘다 해도 동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취지가 있으므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다. ▪ 위원은 재정적으로 볼 때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수익에서 적자가 나 		

	<p>기금을 손상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과, 각 부서가 고통분담을 안고 사업을 감축해야 한다는 공통된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최대한 3%(명목 3.5%)까지 등록금 인하폭을 결정할 수 있으며, 3%이상의 인하는 절대 재정적으로 불가능함을 설명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은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렵겠지만 사회적 메시지 전달 효과를 감안할 때 3%(명목 3.5%) 인하까지 고려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 위원장은 등록금을 인하하면 인하된 만큼 학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학교가 그동안 어렵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해 왔으므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모든 위원들의 동의하에 2012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의 등록금을 3%(명목3.5%) 인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다. ▪ 위원은 운영수익 적자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미 크게 감축한 안에서 다시 40여억원을 삭감해야 하므로 정책적인 판단하에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다. ▪ 위원장이 전문.특수대학원의 등록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다 ▪ 위원은 현재 등록금의 인하 논의는 비용적인 측면을 감안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특수대학원의 많은 학생들은 학부를 졸업하고 이미 사회에 나가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학위를 취득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의 등록금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인상을 적용은 어렵지만 등록금은 최소한 동결보다 낮게 책정할 수 없을 것이라 설명하다 ▪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여 전문.특수대학원의 등록금을 동결하는 안으로 합의하다. ▪ 위원장은 계절학기 등록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다. ▪ 위원은 계절학기 등록금이 최근 3년간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취지에서 동결되어 왔고, 학기당 등록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왔으므로, 2012학년도에도 동결할 것을 제안하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은 학부.일반대학원 등록금을 3%(명목 3.5%) 인하하고, 전문.특수대학원 및 계절학기등록금을 동결하는 위원회의 합의된 안을 총장님께 보고하기로 말하다. <p>3. 폐회</p> <p>위원장은 제4차 위원회로 등록금에 대한 심의가 최종 종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학생 위원들 모두 심의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히고 오후 4시 30분 폐회를 선언하다.(이상)</p>																					
확인인	<p>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 함</p> <p>2012년 2월 3일</p> <table> <tbody> <tr> <td>위원장</td><td>오 수근</td><td></td></tr> <tr> <td>위원</td><td>신 경식</td><td></td></tr> <tr> <td>위원</td><td>차미경</td><td></td></tr> <tr> <td>위원</td><td>조경원</td><td></td></tr> <tr> <td>위원</td><td>이승욱</td><td></td></tr> <tr> <td>위원</td><td>서미옥</td><td></td></tr> <tr> <td>위원</td><td>서지희</td><td></td></tr> </tbody> </table>	위원장	오 수근		위원	신 경식		위원	차미경		위원	조경원		위원	이승욱		위원	서미옥		위원	서지희	
위원장	오 수근																					
위원	신 경식																					
위원	차미경																					
위원	조경원																					
위원	이승욱																					
위원	서미옥																					
위원	서지희																					
작성자	<p>소속 : 예산과</p> <p>성명 : 이지영 </p>																					